



1906년 경의철도 부설 완공과 함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일산역은 1932년 역사를 준공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비교적 검색이 덜했던 일산역을 거쳐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만세운동 등 민족저항 운동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공간이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고양 시민들도 일산역을 지날 때마다, 역이 품고 있는 빛나는 역사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이 될 거예요.”

아기자기한 매력 넘치는 시민의 휴식 공간

용산에서 신의주까지 오가던 경의선 철도는 1951년을 마지막으로 북쪽 운행이 중단됐다. 2007년 화물 취급이 중지되고 2009년 신 역사로 이전해 수도권 전철 경의선으로 개통했다. 이후 구 역사는 2015년 내부를 리모델링해 전시관과 장난감 도서관으로 거듭났다. 전시관에는 일산역 이야기와



오일장 이야기를 비롯해 역무원 유니폼과 모자, 명찰, 가방, 빗바랜 추억의 흑백사진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일산역의 지났했던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특히 과거 역무원의 유니폼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오면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옛 일산역사의 매표소를 재현해놓은 공간도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발권 체험(일산역 스탬프)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일산역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티켓도 끊을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1930년대 경의선 열차 풍경을 담은 포토 존, 느린 우체통 등 다양한 무료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역사 밖에는 아기자기한 쉼터도 구성되어 있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가깝고도 먼 북한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 한 구석이 찡해요.”

푸근한 정과 따스한 인심은 덤

옛 일산역 인근에서는 친근한 마을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오일장이 열린다. 도시가 개발되며 주변으로 높은 건물들이 올라왔지만, 시장의 푸근한 정과 인심만은 그대로다. 역 앞 일산시장은 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며 시끌벅적 활기가 넘친다. 골목과 차도 옆으로 알록달록 파라솔이 길게 줄지어 섰다.

일산시장은 1900년대 초반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며 일산역 쪽으로 이전, 일산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산장이라고 불린 세월만 100년이 넘는 셈이다. 오일장은 상설시장인 일산시장을 중심으로 곳곳에 들어선다. 🌸



INFO BOX



입장료 무료
운영 시간 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동절기 (12월~2월) 화요일~ 금요일 10:00~17:3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일요일 / 법정 공휴일, 위탁 법인이 지정한 날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 폐관 30분 전에는 입장해주시길 바랍니다.

